선 물

펜을 들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봅니다.
정말 힘들었고 길었던 한해가 아니었는지...

우리 아기가 두 번 태어난 해이기도 한 작년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희망이 있었기에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덧 조혈모세포이식을 한지 7개월이 지났고 아팠을 때와는 달리 너무도 잘 먹고, 잘 뛰어노는 아기를 바라보면 저렇게 순한 아기가 왜 그리도 보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조혈모세포를 주신 분께 뭐라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지만 마음 같아서는 평생 헌신하며 조혈모세포를 주신 당신께 봉사라도 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리 못한다기에 이렇게 건강해져서 걸어 다니는 아기의 발도장만 찍어 보냅니다. 아기가 자라는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세상에 감사하며 주신 분께 감사하며 많이 베풀며 살아가려 합니다. 아마도 조혈모세포를 주신 그 분도 그런 분이라 믿기에... 이제 재롱도 잘 피우고 마빡이 흉내에 웃음 짓게 하는 저희 딸아기 재롱도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만...

선생님! 저희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걸 겪어본 부모님들께서는 아시리라 믿지만 새 생명을 주신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아기를 훌륭하게 키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히 받은 선물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 합니다.

• 글 _ 수혜자 _ 전 은 서

멋진형아

고마운 분께 올리는 글

• 글 _ 수혜자 _ 이 준 수

이렇게 늦게 답장을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지요? 당신의 소중한 조혈모세포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당신께서 보내주신 격려의 편지를 받고서도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에 쉽게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월 ○일은 우리 아기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의 조혈모세포가 우리 아기에게 잘 맞아서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이 거의 없이 회복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통원 치료로 매주 검사를 받으며 면역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대견스럽지요. 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편지도 읽어주었는데 "형아, 고마워"하더군요, 정말 알고 하는 말인지...성격도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식이 아주 잘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지금처럼만 회복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밖에... 당신의 소중한 행동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 깊게 보살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시려는 결정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음을 알기에 당신의 은혜에 어떠한 말로 감사해야 할런지요.

당신의 숭고한 마음 가슴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멋진 형아' 님께.
수혜자의 부모 올림.